

Latin America's Perspective of Korea

라틴아메리카의 눈으로 본 한국

경복궁 - 역사와 명소 둘러보기

하루 코르데로 마르티네스

한국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가득 찬 도시이다. 근대와 동양의 색채로 물든 오래된 장소들의 아름다운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긴 역사,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제1세계의 국가로서 근대적 삶과 자연 경관을 모두 나타내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모국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올 때 내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인 경복궁을 보여준다. 경복궁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있다. 이곳은 몇 번을 방문해도 질리지 않는데, 문화, 특색, 한국 민족의 역사를 한 번에 보여줄



경복궁 정문 (출처: 저자)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위쪽)과 세종대왕 동상(사진: 필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잘 보존된 궁궐이기도 하다.

경복궁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광화문에서 여정을 시작하곤 한다. 광화문 역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로, 세종로가 교차하고 청계천 광장 중심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광장을 걸으며 수많은 근대식 건물을 감상할 수 있다. 동시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인상적인 동상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세종대왕은 통치기간동안 한국의 자모인 한글을 비롯하여 여러 과학 발명품을 만들기도 했다. 그 중 측우기, 태양계를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태양계로는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도 하다. 이순신은 일본의 해상 침략으로부터 여러 번 조선을 보호하였으며 전투에서의 위대한 승리로 오늘날 한국에서 인정받는 인물이다. 두 인물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복궁을 방문할 수 있고, 조선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광장 아래에 마련된 큰 전시관을 방문할 수 있다. 이 전시관은 무료이며 조선 시대에서 일구어진 성취의 결과와 당시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광화문은 큰 분수를 가지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도 있기도 하다. 꽃이 만드는 풍경은 싱그럽고 안락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광장 근처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공연예술을 위한 세종문화회관도 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일 년 내내 연주회, 공연, 예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광장 자체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근처에도 볼거리가 많다. 이 모든 공간을 구석구석 즐기기 위해서는 해가 떠있는 낮에 광장에 가기를 추천한다. 하지만 밤에 방문하는 것도 추천하는데, 모든 공간이 다양한 빛으로 그려져 낮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광장의 끝에는 경복궁이 위치한다.

궁에 도착하면,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것은 궁의 대문인 광화문이다. 여기에서는 널리 알려진 수문장 교대의식을 진행한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도 한국이 유지하는 전통 중 하나이다. 실제로 수문장 교대의식은 소리, 색채가 조화를 이루는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수문장들은 섬세하게 한국 전통옷을 입고 북소리에 맞추어 섬세하게 숙련된 움직임을 보여준다. 교대의식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문 전에 시간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문장 교대 의식(사진: 필자)

광화문은 여러 번의 화재, 재건, 장소의 이동을 겪었지만 가장 큰 복구는 2010년에 이루어졌다. 해당 공사는 광화문을 역사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옮겨놓기 위해 이루어진 공사였다. 오늘날 광화문은 서울의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지며 서울 역사의 상징이기도 하다.

광화문을 지나면 경복궁을 만날 수 있다. 경복궁은 북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위치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경복궁은 조선 왕실의 구성원이 거취하는 곳이었다. 또한 대한제국의 황제와 측근이 머무는 곳이기도 했다. 경복궁은 수많은 건축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쟁과 침략을 거쳤지만 당대의 요소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경복궁은 여러 정원, 계단, 호수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이곳은 훌륭한 사진과 아름다운 장소에서의 좋은 기억을 가져가기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경복궁은 1395년에 완공되었는데 임진왜란(1592-1598)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1867년 왕정이 주도하여 재건을 거쳤고 일제강점기에 다시 상당 부분 손상을 입었다. 1990년 경복궁 재건 계획이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재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복궁의 입장료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며,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경복궁 근정전과 근정전 내부(사진: 필자)

입고 무료로 입장할 수도 있다. 한복은 궁 근처에서 시간 당 대여가 가능하며 전통의상으로 경복궁을 거닐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가장 적절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복을 입고 궁을 거니는 것은 평생 품을 수 있는 기억이 될 것이다.

경복궁의 각각 4방면에 문이 있다. 광화문(남쪽)을 건너면 입장권을

사는 복합 시설이 있으며 이 곳을 지나면 궁의 주요 시설인 근정전을 볼 수 있다. 근정전은 공식 행사가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이것은 궁의 시설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이다. 더불어 다른 거주 시설도 볼 수 있다. 사진을 찍기에는 향원정이 매력적인데, 아름다운 호수, 나무, 초록으로 뒤덮인 공간에 둘러싸여있기 때문이다. 향원정은 왕을 방문하는 사신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궁을 걸으면 마치 다른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에게 있어서는 조선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건축을 사용했는지,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등 조선 왕정의 전통과 관습을 알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경복궁은 한국 전통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훌륭한 곳이다. 나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건축물 천장에 그려진 그림들이었는데, 모두 예술 작품이었다. 각각을 구석구석 둘러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관람해야한다. 궁에는 지붕, 조각, 호수, 산책로,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경복궁의 면적은 50 헥타르이며 경복궁의 모든 시설을 최대한 즐기고 여유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입장권을 사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가이드 관람이 무료로 제공된다. 방문 전 경복궁 홈페이지나 혹은 매표소에서 가이드 관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 관람을 추천하는 이유는 건축, 자재, 사용, 당대 관습 등에 대해 유용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나는 경복궁에 여러 번 방문했었다. 어떤 계절에 가든 경복궁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다만 나에게 있어서 봄과 가을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아름다운 색감과 자연이 선물하는 경관 때문이었다. 경복궁이 화요일에 휴관하는 사실을 참고하여 화요일을 제외한 날에 방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경복궁 내에는 한국국립민속박물관이 있다. 가장 많이 방문하는 박물관 중 하나인데 한국민족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전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박물관 내를 산책하는 것도 추천한다.

이 지역을 관광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정점을 찍는다고 할 수 있다. 대



출처: 저자

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이기도 한 이곳은 파란 지붕을 가진 한국 전통 건축물이지만 근대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경복궁의 북쪽 문으로 나오면 청와대가 보이고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루 코르데로 마르티네스 — 프리랜서

허수진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석사과정